5·18 진상조사위 "조사 정점은 전두환"

5·18묘지 참배후 출범 선언
"가해자의 진실한 고백 기다려"
옛 광주교도소 발굴 현장 방문
5·18기념재단 5월단체 간담회

"40년간 미해결된 5·18진실을 밝힐 입구는 실질적 지휘자를 밝히는 것, 마지막 출구는 암매장지와 행불자 규명입니다."

40주년을 맞은 5·18의 진실을 밝혀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가 광주를 방문해 공식출범을 선언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등 오월 단체들은 5·18진상조사위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5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께 5·18진상조사위 송선태 위원장, 안종철 부위원장,이종협 상임위원, 민병로·이성춘·서애련·오승용·이동욱·차기환 위원 등 9명 전원이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이들은 참배 후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고, 5·18관련 주요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사위원들은 이날 5월 영령에게 헌화·분향 한 후 송 위원장이 대표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5·18진상조사위의 공식출범을 알렸다.

송 위원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40년간 분열적이고 소모적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오직 진실을 추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신념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면 주저 없이 진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정하게 조사해 국가폭력 실상을 확인한 뒤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되면 가차 없이 조처하겠다"며 "가해자의 진실한 고백은 상처를 보듬어 국민적 화해를 도모하고 국민통합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이날 지난해 12월 19일 신원미상의 유골이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발굴 현장을 찾아 광주교도소장에게 현장브리핑을 듣고 부지를 둘러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송위원장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 교도소 부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측과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5·18진상조사위 조사위원들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5·18 기념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광주시와 5·18 주요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제안 및 요청사항을 전달받고 조사방향 및 원칙, 관련 단체간 협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5월 단체들은 ▲5·18관련 군 기록의 철저한 조사와 조작 및 왜곡의 경위 확인 ▲피해자 중심의 조사방향과 원칙 ▲청문회 광주현지 개최 등 5·18진상규명조사과정의 정례적인 대국민 보고회 등의 국민 공감을 위한 노력 ▲5월 단체 등이 추천한 조사인력의 적극 수용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광주사무소 운영에 대한 제안▲국가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5·18 특별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5·18 진압 작전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온 전두환(88)씨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송 위원장은 "5·18 진압작전 발포 명령의 실질적인 지휘 체계와 발포 명령 체계를 조사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전두환 씨를)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전씨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는 가장 첨예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과거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일사부재리에 걸려있는 점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문제"라면서 "헌정질서파괴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지만, 집단살해죄를 국내법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지난 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 터를 살펴보고 있다. 이곳에서는 최근 법무부 기록에 없는 수십 구의 유골이 발견돼 5·18행방불명자와의 관련성에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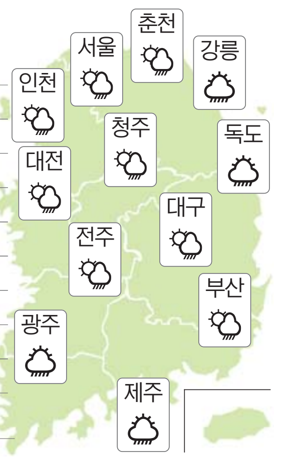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7:41	달뜸	14:03
해짐	17:35	달짐	02:54

소한(小寒)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다.

광 주	가끔흐리고비	4/10	보 성	가끔흐리고비	2/8
목 포	가끔흐리고비	4/9	순 천	가끔흐리고비	3/9
여 수	가끔흐리고비	6/10	영 광	가끔흐리고비	2/9
나 주	가끔흐리고비	3/9	진 도	가끔흐리고비	5/13
완 도	가끔흐리고비	6/11	전 주	차차흐려져비	2/11
구 례	가끔흐리고비	1/9	군 산	차차흐려져비	1/8
강 진	가끔흐리고비	3/9	남 원	차차흐려져비	0/8
해 남	가끔흐리고비	4/11	흑산도	가끔흐리고비	7/13
장 성	가끔흐리고비	2/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	0.5	남동~남	0.5~1.0
	먼바다(북)	남동~남	0.5~1.5	남동~남	1.0~2.5
	먼바다(남)	남동~남	0.5~1.5	남동~남	1.0~2.5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	0.5	남동~남	0.5~1.0
	먼바다(서)	남동~남	0.5~1.5	남~남서	1.0~2.5
	먼바다(동)	남동~남	0.5~1.0	남동~남	0.5~1.5

◇ 생활지수

감기	보통
뇌졸증	보통
미세먼지	좋음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3:28	10:28
	16:19	22:29
여수	11:54	05:56
	--:--	18:00

◇ 주간 날씨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9/14	6/6	1/8	-1/9	0/8	1/6	-1/7

강력범 얼굴, 머그샷·신분증 사진으로 공개

앞으로 강력범 얼굴을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나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범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이 같은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강력범 얼굴을 따로 찍은 머그샷을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강력범이 머그샷 배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안부에 의뢰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이런 방식이 실현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추가로 논의한 뒤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복잡한 세금문제 마을 세무사에게 맡겨 주세요

광주 남구 무료상담 서비스

"복잡한 세금문제는 마을 세무사에게 맡겨주세요."

광주시 남구가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세무사 전화상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5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최근 지역내 16개 동에서 활동할 마을 세무사 10명을 위촉했다. 마을 세무사는 내년 연말까지 2년간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상담과 지방세 불복 청구 상담 등을 맡는다.

상담을 희망 하는 주민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배정된 마을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1차 상담으로 고충 해소가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마을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소정의 상담료를 부담해야 한다. 마을 세무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영세 사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주민 등 세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이 마을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환경운동연합 겨울캠프
어린이 참가자 선착순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어린이 겨울캠프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오는 11일부터 1박 2일간 무등산 평촌마을 일대에서 열리는 '평촌 겨울왕국' 겨울캠프는 자연을 테마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깨우고 자연과 상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광주지역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개인당 5만원이며, 접수는 오는 9일까지 전화와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관원 설 제수용품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백화점·마트, 전통시장, 식육점, 통신판매업체, 양곡판매상 등이며 단속품목은 쇠고기·대추·조기 등 수입 제수용품과 한과·참치·식용유 등 선물용품 등이다.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본부세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0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옅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중흥동 665-29)